

김학범 감독 “병역? 한마디도 안 해”

“선수들에게 병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지휘한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대회를 결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감독은 6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전하겠다고 말할 적 있는데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대회 중에) 병역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기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1위 말레이시아에 1-2로 패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토너먼트에서 이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일본을 차례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특히 우승후보로 평가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이 힘겨웠다. 앞치락뒤치락 승부 끝에 극적으로 4-3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김 감독은 눈시울을 붉혔다.

김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이 정말 좋은 팀이라는 걸 느꼈다. 버거운 경기였다. 역전에 재역전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이겼지만 칭찬은 하지 않고 많이 혼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 경기가 준결승, 결승전에서 좋은 경기로 이어진 계기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의조(갑파 오카사) 선발 논란에 대해서 “실력 실패한 순이었지만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황의조는 앞으로 성인대표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할 것이다”고 했다. 김 감독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지도한다. 그는 “아시아의 경쟁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걱정스럽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다”며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시안게임 2연패 소감은.**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에 도전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약속을 지킨 것 같아 고맙다.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줬다. 팬들의 성원도 매우 컸다. 축구팬들에게 드리고 싶다. K리그도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지에서 우승하고 군대 기간 아들이 생각났다고 했는데.**
“나에게 가족들이 있어 힘이 된다는 의미였다. 둘째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오지 못했다. 가족에 대한 인사였다.”

▶**대회 기간에 선수들에게 강조한 부분은.**
“첫 소집에서 슬로건이 ‘병역은 거둬내라’, ‘선수들(동료)을 위해 싸워라’, ‘챌린징 앤 챔피언’이었다.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8강 우즈베키스탄전이 고비였는데 승리 후 분위기는.**
“솔직히 8강에서 붙은 게 더 좋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팀이라는 걸 알았지만 경기를 하면서 더 느꼈다. 버거운 경기였다. 역전에 재역전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정말 힘들었다.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어했다. 경기 마치고 실수한 부분에 대

해선 얘기하지 않았지만 칭찬은 하지 않고 절박한데 이렇게 해서 우승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혼만 냈다. 그 경기가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좋은 경기로 이어진 계기였다고 본다.”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눈물을 흘렸는데.**
“나 이 먹어서 그렇다. 나도 축구 인생을 걸었다. 우리 선수들도 인생을 걸었다. 내 머리 속으로 여기저기 끝날 수 있겠다, ‘선수들과 같이 가자’ 경기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모든 걸 쏟아서인지 경기 후에 벤치의 주저앉았다.”

▶**당초 3백을 준비했다가 4백을 활용했는데.**
“3백은 준비 잘 하는 사이드백이 없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선수들이 현지에서 부담스러웠다. 코칭스태프와 회의한 끝에 4백으로 바뀌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바꿨다. 선수들은 국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4백에 익숙했다.”

▶**세대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 자리에서 성인대표팀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세대교체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김학범 감독과 코치진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상광 코치, 김학범 감독, 이민성, 김은중 코치.

▶**성남 시절 본 황의조와 아시안게임 황의조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래 황의조는 성남 시절에 교체 멤버였다. 유심히 보니까 출전 시간과 상관없이 슈팅을 많이 때렸다.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골을 넣고 다음 경기에서 또 골을 넣으며 활약을 보였다. 이번에 선발하기에 앞서 비디오 5개 정도를 보고 일본에 건너갔다. 구단(갑파 오카사)은 황의조 차출에 반대했다. 반대를 많이 했다. 나도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론의 반대도 있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다. 실력 실패는 할 순 있지만 확신이 있었다. 성인대표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할 것이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에게 병역 이야기를 했다.**
“한마디도 안 했다. 포커스는 이기에 것에만 맞췄다.”

▶**선수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못 보게 하나.**
“보지 말라고 했다. 이저널 놔 있으면 보라고 했다. 나는 기사도 안 봤다. 안 보니까 편하더라. 선수들이 조금씩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야 하는 데.**
“걱정스럽다. 아시아 경쟁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김관근 위원장의 첫 (지도자) 작품이라 부담스러웠다. 현재 협회의 행정이 이전과는 달리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다.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본다.”

▶**대회 후에 어떻게 쉬었는지.**
“잠만 잤다. 나와 코치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다. 다녀오니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집도 어제 풀었다. 거기서는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설사를 했다.”

▶**피울루 벤투 성인대표팀 감독과의 협업은.**
“벤투 감독은 열려 있는 거 같다. 대화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우리 팀 연령대별 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황희찬이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격한 반격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주심들의 판정이 관대했다. 퇴장성 반격에도 관대했다. 선수들에게 강하게 하되 파울은 하지 말라고 했다.”

▶**대회를 통한 손흥민의 인상은.**
“많이 성숙했다. 예전에는 날뛰는 현방지축 같았는데,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해야 한다고 하더라. 더욱 잘 할 수 있는 선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본다.”



27일(현지시각)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농구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한국과 필리핀의 8강 경기. 한국 허재 감독이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 감독, 허훈, 허훈.

‘두 아들 특혜’ 시비 농구대통령 허재, 결국 사령탑사 불명에 퇴진

“농구 대통령” 허재(53)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이 ‘아들 특혜’ 논란을 넘지 못하고 두 아들과 함께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대한농구협회는 5일 허 감독이 사의를 표명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2016년 6월 대표팀 전임 사령탑으로 선임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당초 허 감독의 임기는 내년 2월 까지였지만, 허 감독은 거센 논란 속에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허 감독이 임기를 약 5개월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것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아들 특혜’ 논란 때문이다.

두 아들 허웅(26·상무), 허훈(23·부산 KT)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되자 그간 이어져 온 논란에 불이 붙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농구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에 그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전날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 참가할 최종 엔트리 12명 명단에서 허웅, 허훈이 모두 제외됐고, 허 감독까지 지휘봉을 내려졌다.

허재 삼부자가 처음으로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게된 것은 2016년 6월 말이다. 그해 6월 중순 허 감독이 전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고, 허웅이 기존에 대표팀 명단에 포함된 가운데 가드 박찬희가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선수로 허훈이 합류했다.

당시 허훈은 대학생이었지만, 공격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공격형 가드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터라 논란이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병역면제 혜택이 걸린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허웅, 허훈이 같은 포지션의 리그 최우수선수(MVP), 어시스트 1위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선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허 감독은 신장 186cm의 가드 허웅을 포워드로 선발하고, 이제 막 프로 무대에 데뷔한 허훈의 선발을 강행했다. 무리한 발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허 감독은 좋은 아들 선발과 관련해 “경력향상위원회와 논의 끝에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력향상위원회가 장신 포워드를 선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허 감독은 허훈의 대표팀 선발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자 농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난적’ 이란에 무기력하게 패배해 동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농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허웅, 허훈을 모두 대표팀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유재하 경기력향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아시안게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했다.

사실상 허웅, 허훈의 발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던 허 감독의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사퇴의 길을 걷게 됐다.

뉴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원 구래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설진강, 온조루, 패야굴,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